근기에 맞는 지도 방편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⑩ 사료간(四料揀 · 네 가지로 시험하다)

"어떤 때는 사람만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경계만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아니한다. 어떤 때에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고, 어떤 때에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느니라."

그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사람만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따뜻한 봄날, 땅이 비단이 깔린 듯하고 어린아이의 늘어진 머리카락이 명주실처럼 하얗다."

스님이 말했다.

"어떤 것이 경계만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왕의 법령이 천하에 두루 잘 시행되고 장수와 군대는 요새 밖에서 전쟁을 끝냈도다."

스님이 말했다.

"어떤 것이 사람과 경계 둘 다 빼앗는 것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병주(幷州)와 분주(汾州)는 소식이 끊어져서 홀로 한 지방에 있느니라."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왕이 궁전에 오르니 시골 노인이 태평가를 부르니라."

임제가 선수행자를 지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설한 네 가지 시험 방법을 '4료간(四料揀)' 이라 한다. 사람과 경계를 빼앗고 빼앗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는 상대자의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방법이다. 료간(料揀)이란 잘 헤아려 중요한 핵심을 분간해 낸다는 뜻이다. 동산양개(洞山良介)의 오위설(五位說)과 함께 선가에서 학인을 제접(提接)하는 데 쓰던 특별한 수단이다. 빼앗는다는 것은 부정한다는 뜻이고 빼앗지 않는다는 것은 긍정하는 것이다. 사람과 경계는 곧 주관과 객관을 말한다.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서는 4료간에 대하여 근기(根機)에 따라 사람을 빼앗고 경계를 빼앗지 않는 것은 하근기를 대하는 방법이고,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는 것은 중근기를 대하는 방법이며,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는 것은 상근기를 대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은 격식(格式)을 뛰어넘은 출격인(出格人)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구분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결국 근기의 차이에 따라 4료간이 시설되었다는 것이다.

선의 궁극적인 경지는 주객이 끊어진 경지라고 한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은 언제나 주객이 상대하면서 그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관념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 이럴 때는 진정한 입선(入禪)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곧 무념(無念)이나 무심(無心)의 상태가 되지 못하면 사람이 경계를 따라가고 경계가 사람을 자극하게 되어 분별이나 망상을 일으키면서 경계에 나타난 대상에 집착하게 된다. 그리하여 돈오(頓悟)를 내세운 남종선에서는 무념(無念)을 종지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다. 〈육조단경〉에서도 무념을 강조하면서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는 말이 나온다. 또 육조의 제자 화택신회는 무념이라는 말 대신에 부작의(部作意)라는 말을 썼는데 억지로 생각을 지어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달마가 중시한 〈능가경〉에는 "부처님이 법을 가르칠 때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我教授法時 心不起)"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도 또한 무념 혹은 무심으로 법을 설한다는 뜻이다. 또 달마(達磨)는 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기도 하였다.

"선이란 산란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니, 움직임도 없고 망념도 없는 무념을 선정이라 한다(禪爲亂心不起 無動無念爲禪定)" 하였다.

점수(漸修)를 주장한 북종선에서는 무념이라는 말 대신에 이념(離念)이라는 말을 썼는데 무념처럼 단도직입적인 말이 아니라 망념을 여의는 과정을 두고 있는 점수적인 뉘앙스를 풍긴다.

시중(示衆)은 상당(上堂)과 마찬가지로 종사가 대중에게 종지를 드러내 보이는 법문인데, 상당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정해진 날짜에 행해지는 법문이라면, 시중은 그런 조건이 없이 일반적인 법문을 넓게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시중이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하는 법문이다. 만참(晩參)은 저녁때 하는 법문이다.

〈조계종 고시원장〉

부처님만의 18불공법



세상 속 경전읽기

⑩ 반딧불이와 해오름

어렸을 때, 한여름 밤에 반짝반짝 노란 빛을 발(發)하며,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던 반딧불이를 신기해하며 쫓아다니던 기억이 있다. 반딧불이(螢火蟲)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반딧불(螢火, 螢光)은 암놈은 한 줄, 수놈은 두 줄의 빛을 발해 서로 짝을 찾는다고 한다.

4세기 경 중국 동진(東晉)의 차윤(車胤)이란 사람은 가난해서 등잔 기름을 구할 수 없어, 여름이면 수십 마리의 반딧불을 흰 명주주머니(練囊, 잿물에 담가서 아교질을 없애 희고 광택이 나게 만든 명주실로 짠 주머니)에 담아 그 빛으로 밤을 새우며 책을 읽어 마침내 벼슬길에 올랐다. 비슷한 시기에, 겨울밤 백설(白雪)에 비추어 책을 읽어 벼슬길에 오른 손강(孫康)의 예와 합쳐 형설지공(螢雪之功, 가난한 사람이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가며 고생 속에서 공부함)이라는 고사(故事)가 생겼다.

근래에는 환경이 오염되어 반딧불이는 좀처럼 보기 힘들어졌다. 이에 1982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무주 설천면 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다슬기) 서식지가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되었고, 그후 그 지역의 반딧불이 개체수가 급감함에 따라, 2002년 1월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이 무주읍 가옥리, 설천면 장덕리, 무풍면 금평리 등으로 확대되었다.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마하반야바라밀경(摩訶般若波羅蜜經)〉에, 반딧불이의 비유가 나온다. 성문과 연각 이승(二乘)이 스스로의 몸도 다 비추지 못하는 반딧불과 같이 미미한 빛이라면, 보살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온누리(우리가 사는 남섬부주)를 남김없이 비추는 무량한 광명이다.

"반딧불이(螢火蟲)가 '내 능력으로 능히 염부제(4대주 중 남섬부주)를 비추어 두루 크게 밝히겠다' 는 마음을 먹지 않는 것처럼, 모든 성문과 연각 또한 '우리들이 육바라밀을 닦고 18불공법(不共法)을 닦아서 무상정등정각을 얻고, 무량한 아승지 중생을 제도 해탈시켜 열반을 얻도록 하겠다' 고 마음먹지 않는다. 사리불이여! 해가 뜰 때 광명이 염부제를 두루 비추어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곳이 없듯이, 보살마하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육바라밀과 18불공법을 닦아 무상정등정각을 얻고, 무량한 아승지 중생을 제도 해탈시켜 열반을 얻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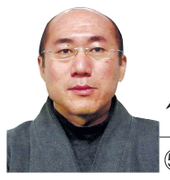
〈摩訶般若波羅蜜經 T0223_.08.0222b05–13〉

우리 속담에 "개똥불로 별을 대적한다"는 말이 있다. 반딧불은 별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미미한 빛인데, 하물며 별빛을 덮어버리는 태양광과의 비교는 언감생심이다. 여기에서 18불공법은 붓다만이 갖추고 있는 열여덟 가지 특징이다.

"이른바 18불공법이란 어떤 것인가. 1)~3) 모든 붓다께서 몸, 입, 생각으로 짓는 것에 허물이 없음(身 · 口 · 念無失). 4) 모든 중생에 대해 평등한 마음(無異想). 5) 적정(寂定)한 마음(無不定心). 6)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품는 마음(無不知已捨心). 7) 중생구제의 원력에 퇴보 없음(欲無減). 8) 수행에 퇴보 없음(精進無減). 9) 알아차림에 퇴보 없음(念無減). 10) 중생구제의 지혜가 쇠퇴치 않음(慧無減). 11) 해탈에서 속박으로 퇴보치 않음(解脫無減). 12) 해탈지견에 퇴보 없음(解脫知見無減). 13)~15) 모든 행위 · 말 · 생각에 지혜를 수반함(一切身 · 口 · 意業隨智慧行). 16)~18) 과거 · 미래 · 현재세의 모든 것을 알아 막힘이 없음이다"

〈摩訶般若波羅蜜經 T0223_.08.0255c25–0256a05〉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㊻ 이해의 길 36

모두가 꽃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가수 나훈아가 부른 '잡초' 라는 노래다. 사람들은 장미나 백합, 벚꽃 등은 좋아하지만, 잡초는 다른 꽃들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해서 뽑아내곤 한다. 이 잡풀은 기억해주는 이도 없다. 가수는 어쩌면 그 모습이 안쓰러워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닐까. 그러나 화엄의 세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곳에서는 잡초도 장미와 조금의 차별도 없이 아름다운 꽃으로 대접받기 때문이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불성(佛性)이 실현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 화엄의 시선이다.

화엄종은 〈화엄경〉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다. 화엄(華嚴)이란 글자 그대로 온갖 꽃(華)으로 장엄한다(嚴)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된 파라다이스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계는 불성이 실현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를 화엄의 용어로 불성현기(佛性現起), 줄여서 흔히 성기(性起)라고 한다. 성기는 불성(性)을 갖추고(具) 있다는 천태종의 성구(性具)와 대비되는 말이다. 이는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있다. 이미 모두가 불성이 실현된 부처인 것이다.

화엄의 시선에서 장미는 아름답고 잡초는 보잘 것 없다는 생각은 그저 인간의 헛된 주관에 불과할 뿐이다. 장미 부처, 잡초 부처, 잘 생긴 부처, 대머리 부처, 노동자 부처 등 모든 존재는 부처로서 평등하다는 것이 화엄에 비친 세계의 참 모습(實相)이다. 우리는 등산을 하다가 뱀을 만나면 놀라곤 하는데, 이 또한 주관적인 편견이자 왜곡일 뿐이다. 뱀은 그저 그렇게(如如) 생긴 것뿐인데, 인간의 주관이 뱀에게 '징그럽다' 는 이미지를 덮어씌웠기 때문이다. 화엄은 편견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실상 뱀이 징그러운 것이 아니라 뱀을 징그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징그러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지만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든다는 생각 역시 화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가장 철학적인 경전이라고 평가 받는 〈화엄경〉은 60권, 혹은 80권의 방대한 양을 자랑한다. 이 사변적인 화엄종이 중국에서는 두순(杜順, 557~640)과 지엄(智儼, 602~668)을 거쳐 3조인 법장(法藏, 643~712)에 이르러 활짝 꽃을 피운다. 천태종이 남북조에서 수나라에 이르는 혼란의 시기에 유행했다면, 화엄종은 당나라로 통일된 이후 유행한다. 통일된 나라에서 승자가 패자를 향해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 이니 함께 하자고 설득하기에 화엄이 제격이었던 것이다. 잡초든 장미든 모두 '하나' 임을 강조하는 화엄의 이상주의는 절대 권력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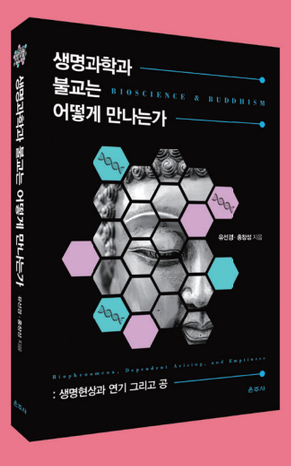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통일신라 이후 화엄이 유행한 것도 결코 우연만은 아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패자를 품기 위한 목적으로 의상 대사를 앞세워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화엄10찰(刹)을 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화엄은 중앙권력이 무너지고 혼돈의 상황이 다가오면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철학이다. 혼란의 시기에는 이상보다 고통스런 현실이 먼저 다가오기 때문이다. 화엄과 천태가 이상과 현실이라는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천태가 불성에서 지옥을 그리고 있다면, 화엄은 지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허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치 잔뜩 술에 취해 걷다가 전봇대에 이마를 부딪치면 하늘에 별이 보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별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술이 깨면 저절로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 허상이라는 술에서 깨어나면 지옥은 없고 모두가 부처로 보인다. '세상은 아름답다' 는 말은 이때 나오는 탄성이다.

화엄은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를,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품고자 하는 철학이다. 비록 화엄이 메이저와 다수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기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이 점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 화엄에는 소외되고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담겨있다. 우리가 화엄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불교를 통해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생명현상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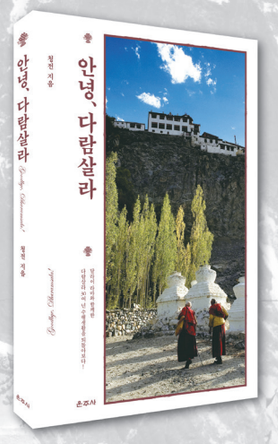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본질주의에 입각한 서구의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불교의 연기와 공의 관점만이 현대 생명과학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유선경, 홍창성 지음/국판 무선/336쪽/값 15,000원

30년 동안 다람살라에 머물며, 스승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스님이 풀어놓는 이야기들!



안녕,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화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감동적인 모습들!

청전 지음/국판 무선/200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